

“청정자연서 숲명 때리고 북케이션”

서울시민 휴가 ‘자연명승지’ 1위 경주 코오롱 “토함산 일몰 장관” 마리우나, 숲·동해바다 함께 감상 금강송 예코리움, 명상·독서로 힐링 포코 성수, 접근성 좋은 서울숲 활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즐기는 모습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급격히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나 홀로, 또는 일행끼리만 오붓하게 즐기고 쉬고 싶어하는 언택트 힐링이 호캉스의 대세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초입에 접어들면서 자연 속에서 휴양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일명 ‘숲캉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관내 또는 주변에 차별화된 숲을 보유한 호텔들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쉼’에 집중한 휴식 특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주 토함산 일몰 바라보며 힐링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시민의 여름휴가 유행을 조사한 결과 ‘자연 명승지 방문’이 1위였고, ‘국내캠핑’이 2위를 차지했다. 감염 예방을 우선시하는 안전 여행과 자연 속 휴양을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가 나타난 결과다.

경주나 제주 한라산 등 기존 유명 관광지의 호텔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품들을 개발해 론칭하고 있다.

경주 코오롱호텔은 대표적인 역사유적 관광지인 경주에 자리했지만, 객실에서 토함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객실에서 바라보는 토함산의 일몰은 멋있기로 소문이 나 있다. 코오롱호텔은 이런 장점을 살려 숲의 녹음과 자연경관을



토함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매력인 경주 코오롱호텔, 울진 금강송 예코리움 전경, 서울 도심에 자리했지만 인근 서울숲을 활용해 숲캉스 테마 상품을 개발한 호텔 포코 성수가 여름시즌에 운영한 ‘바캉도 인 포코’(왼쪽부터 시계방향).

바라보며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일명 ‘숲명’과 인문 다이닝을 즐기는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 동대산 해발 500m에 자리한 마리우나에선 리조트는 숲과 함께 동해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야의 산책로를 걸으며 산림욕을 즐긴 후 객실서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휴양 테마의 패키지를 내놓아 호평을 듣고 있다.

웰니스 리조트 더 위(THE WE)에 있는 WE호텔 제주는 제주 한라산 중턱에 자리해 숲캉스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한다. 현재 싱글여행객을 겨냥한 ‘나홀로 여행’ 패키지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변 넓은 숲을 거닐며 명상과 숲해설,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힐링 포레스트 프로그램이 패키지의 시그니

처 테마다.

●금강송 군락지에서의 명상과 독서

경북 울진의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에 위치한 금강송 예코리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1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숲캉스 명소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불영사계곡과 울창한 소나무숲의 파노라마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금강소나무숲길이 유명하다.

금강송 예코리움은 연말까지 숲의 맑은 공기 속에서 명상과 독서를 통해 내면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북케이션’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투숙객에게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랜덤으로 제공하며 요가, 트레킹 등의 ‘이너 힐링’ 콘텐츠와 건강 식단을 제공한다.

금강소나무 추출물로 만들어진 디퓨



저와 섬유향수, 차량용 방향제 등 자체 브랜드 굿즈도 판매해 숲캉스의 매력을 여행 후에도 느낄 수 있다.

숲캉스는 휴양지나 자연명승지의 호텔들만 관심 갖는 테마가 아니다. 도심 호텔들도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호텔 포코 성수는 인근에 서울숲이 있는 점을 활용해 서울숲 산책을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호텔에서 바쁜 일상을 벗어나 간편하게 숲캉스의 매력을 즐길 수 있어 MZ세대에게 인기가

이박에 메이필드호텔 서울도 도심 속 프라이빗 숲캉스를 누릴 수 있는 ‘웰니스 포레스트’ 패키지를 진행한다. 요가, 명상 전문의 ‘라이프 앤 모어’ 강사들이 준비한 개인 맞춤형 헬스 프로그램을 객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는 “하와이”

인터파크투어가 내년에 출발하는 해외 항공권 수요(올해 6~7월 사전예약 기준)를 분석한 결과 하와이가 6월(34%)과 7월(24%) 사전예약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하와이 외에 6월에는 괌, 베네치아, 싱가포르, 몰디브, 워싱턴, 뉴욕, LA, 칸쿤, 프라하, 뮌헨, 밴쿠버, 방콕 등의 예약이 많았다. 7월 예약은 하와이에 이어 파리, 괌, 몰디브, 방콕, 로마,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도쿄, 라스베이거스, 포르투갈, 오슬랜드, 싱가포르, 후쿠오카 순이었다.

제주드림타워, 27일부터 카카오톡 패키지 판매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가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27일부터 1주일간 카카오페이서를 통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패키지를 판매한다. 투숙 기간은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2인 조식이 포함된 이번 패키지는 평수기 1박 주중(일~목요일) 기준 29만 9000원으로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패키지 중 30만 원 이하는 처음이다. 2박 예약 시에는 카페8 피자 1판과 음료 2잔을 추가 제공하며, 투숙기간 중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조각 케이크 2개를 제공한다.

프랑스 관광청, ‘남프랑스 미리보기’ 캠페인 론칭



프랑스 관광청은 9월 12일까지 ‘남프랑스 미리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남프랑스 지역은 지중해와 알프스를 모두 품은 자연환경을 지녀 프랑스 관광청이 팬데믹 이후 방문하기 좋은 친환경 여행지로 꼽는 곳이다. 캠페인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새로 생긴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투마 아틀타워, 마르세유 최초의 수중 박물관(사진) 등을 소개한다. 또한 여행작가이자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청춘유리와 협업해 주요 여행 스폿을 소개한다.

프랑스 관광청은 팬데믹 이후 방문하기 좋은 친환경 여행지로 꼽는 곳이다. 캠페인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새로 생긴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투마 아틀타워, 마르세유 최초의 수중 박물관(사진) 등을 소개한다. 또한 여행작가이자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청춘유리와 협업해 주요 여행 스폿을 소개한다.

노스페이스,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응원 챌린지

패럴림픽 단복에 친환경 소재 적용 노스페이스 SNS 인증 이벤트 진행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노스페이스가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9월 6일까지 열리는 ‘국가대표 가슴에 노스페이스 인증 이벤트’로 노스페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TV, 온라인에 나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한 팀코

리아 공식 단복의 노스페이스 로고를 찍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리고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노스페이스, #국가대표가슴에_노스페이스)를 적용하면 응모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30명을 선정해 애슬레저룩으로 활용 가능한 백팩과 티셔츠, 팀코리아 마크가 포인트인 다회용 패션 마스크 등 친환경 ‘K-에코 팀코리아 컬렉션’의 주요 제품을 증정한다.

노스페이스는 친환경 혁신 기술인 ‘노스페이스 K-에코 테크’를 통해 패럴림픽 공식 단복 최초로 친환경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과 동일하게 총 17종으로 구성된 공식 단복을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제공한다. 도쿄의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감, 발수·투습, 흡습·속건 기능을 강화했다.

노스페이스는 2016 리우 하계 패럴림픽,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경기대회 등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단복을 책임지며 국가대표 선수단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국가 스포츠 발전에 노력해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7일 (금)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60/70
	24 25		24 25		22 25
강릉	30/60	대전	60/70	전주	60/60
	24 28		23 26		22 27
광주	80/70	대구	20/60	부산	20/60
	22 28		22 30		24 29
창원	60/60	제주	2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3 30		26 32	날씨	최저 최고기온°C



국가대표 공식 단복을 착용한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사진제공 | 노스페이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7일 (금) 음력: 7월 2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행운색: 검정 길박: 북		행운색: 검정 길박: 북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거래상대기가 이익을 의심하게 되니 잘 살펴둬야 한다.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의 믿음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가 힘써야 할 때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자유분방한 날이다.	민중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운산을 초목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랄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시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제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